

高僧 다시보기

신돈, 과연 요승인가

신돈(辛旽, ?~1371)은 본래 승려였지만 환속하여 고려말 공민왕대에 정계를 장악했던 요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그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록이라고 할 <고려사> 열전의 영향 때문이다. <고려사> 열전은 그를 '늙은 여우의 요정'이라고 평하면서 승려로서 온갖 악행을 일삼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고려사> 자체가 불교를 배척하고자 했던 성리학자들이 집필한 것이고 보면, 거기서 화엄세계를 실현하고자 했던 고승으로서의 면모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도 모르겠다.

신돈은 본관이 경상도 영산, 속성이 신씨이다.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어머니는 경상도 영산군 옥천사(玉川寺)의 노비였다. 어려서 출가한 그는 자(字)가 요공(耀空), 법명은 편조(遍照)였다. 공민왕에게 소개되어 왕의 스승이 된 후 환속하여 신돈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청한 거사(淸閑居士)라는 시호를 받았고 곧 진평후(眞平侯)에 책봉되었으며 48자나 되는 긴 관직명을 받을 정도로 재상을 능가하는 지위에 올라 정계와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고려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민왕과 신돈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당시 사회와 사상계를 개혁하고자 했다. 신돈은 원나라 간섭기 후반, 원나라와 연계된 권문세족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당시 민중들에게

현세 구원적 화엄세계 영원 금진적 개혁 단행 좌절 당해

성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신돈은 그의 법명에서 보듯 화엄종승으로, 신라의 상삼님이 창건한 낙산사를 원당으로 삼았으며 궁궐과 당시 최대의 사찰인 연복사에서 대규모 문수법회를 자주 열었다. 그가 열었던 법회는 원년된 300여 명의 고승과 8천여 명의 신도가 참여할 정도로 방대했고 당시 민중들에게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되었다. 원나라에 유학을 갔다온 설산 천희스님을 진각국사로, 선현 스님을 왕사로 책봉하면서 그가 꿈꾸었던 화엄세계를 그리고자 하였다. 이는 해인사를 중심으로 민중들에게 현세구원적 화엄신앙을 펼쳤던 체원 스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멀리서 의상 스님의 실천적 신앙을 펼친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당시 티베트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 신비주의적 성향으로 빠져 너무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하다가 집권 귀족권 문문세족이나 개혁파인 성리학자들에게 제동이 걸렸고, 결국 모함으로 수원에 유배되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죽음 후에도 공민왕의 지시인 우왕을 신돈의 소생이라 믿어부처 '거짓을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소위 '폐가입진(廢假立眞)'을 믿고 불교계까지 매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호색 음탕해서 부녀자들과 자주 사통하였던(眞)이라는 명목에 그들의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신돈에게 뒤집어 씌워 승려였던 그는 다거나 검정 담과 흰 말을 즐겨 잡아먹었다는 등등 폐행한 일삼은 역사의 패륜아로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5월 - 불교학 결집대회 7월 - 인도학 불교학회 학술대회 대구모 학술대회로 '도약 기대'

월인천강지곡 독일어로 번역돼 출간

함부르크대 샤펜 교수 올 봄 번역서 출간

<월인천강지곡>이 독일어로 번역돼 출간된다. <월인천강지곡>은 조선 세조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적은 <석보상절>를 지어 올리자 세종이 이를 답아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한 악장체의 찬불가이다.



유립 한국학회(AKSE) 회장을 맡고 있는 베르너 샤펜(사진) 독일 함부르크 대학 한국학 교수는 6년 동안의 번역 작업 끝에 올 3-4월경 <월인천강지곡> 독일어본을 한국 사회에서 출간한다. 책이 출간되면 함부르크 대학 한국학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번역 작업 6년동안 한국불교 이해 넓혀"

고대와 중세 한국어가 전공인 샤펜 교수는 "독일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중세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월인천강지곡>을 택했다"고 밝혔다.

함부르크 대학의 한국학 전공자는 40여 명. 중국학과 일본학 전공자 400여 명에 비하면 10% 수준이다. 지금까지 100여 명의 한국학 전공자를 배출했지만, 불교 관련 전공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샤펜 교수는 "한국학을 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관련 자료나 사전 등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수업 중 출간된 텍스트도 그렇지만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월인천강지곡>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마냥 즐겁지 않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불교학 용어에 대한 개념 이해였다. "부처님의 생애만 알아서는 번역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샤펜 교수는 "무엇보다 한국 불교와 관련된, 제대로 된 불교학 사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샤펜 교수는 "이전에는 불교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월인천강지곡> 번역을 하면서 불교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며 "불교를 모르던 현대 한국 사회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임오년 불교학계

불교학 관련 단체들의 발걸음이 빠르다. 이미 올해의 학술대회 일정을 잡았거나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불교학 관련 학술대회는 그때그때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8년에 걸쳐 진행될 한국선학회의 '한국 선(禪) 정체성 찾기', 5년 동안 10차례 열리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가산 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5월에 있을 최초의 전국 규모 불교학 학술대회인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와 7월 열리는 일본 인도학 불교학회 정기 학술대회는 참여 학자들의 규모나 논문의 질적인 면에서 한국 불교학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한국불교학결집대회 = 올 학술대회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5월 3-4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다. 전국 규모로는 처음으로 열리는 불교학 대회다. 참여 단체만도 30여 개에 이르고, 20개 주제에 200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공동 주제는 '한국 불교의 현황과 전망'으로 정했다. 1월 현재 140여 명이 논문 발표를 신청했다. △인도학불교학회 = 일본 인도학

불교학회 제53회 정기 학술대회가 7월 6-7일 동국대서 열린다. 인도학과 불교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일본 인도학불교학회는 1951년 동경대 인도철학과에서 시작된 후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불교학자 2500여 명이 참석하고 있는 대규모 학술단체다. 정기 학술대회 때는 10개 분과에서 250여 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회회 창립 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동국대와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공동 주최 형식으로 열리며 '한일 공동 인도학불교학 학술대회'를 결한다. 개최 대학에서 원하는 주제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동국대선 '한국 불교'를 집중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가산 포럼 =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이어 한국 불교 지성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한다. 이미 지난해 신라시대 7명, 고려시대 6명, 조선시대 7명, 근현대 13명 등 불교 지성 33명을 선정했다. '수행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가산포럼에서는 바로 1600여 년 한국 불교사를 밝힌 불교 지성 33명에 대한 사립식 연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한국선학회가 지난해 5월 '동일선리의 선(禪)'을 주제로 열 학술대회 모습.

열린다. 가산 포럼은 2003년 불교의 생명관과 우주의 미래, 2004년 불교와 철학이 말하는 시공의 운영, 2005년 수행문화의 사회화를 주제로 매년 두 차례 개최되었다.

△한국 선(禪) 정체성 찾기 = 한국선학회가 지난해부터 8년에 걸쳐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간한선의 정체성을 조명하는 자리다. 지난해 신라시대 선(禪)을 조명했던 데 이어 올 4월 19-20일 정기 학술대회에서는 1170년 고려 무신란 이전까지의 고려 전기 선(禪)을 다룬다. '고려 전기의 선'을 주제로 고려초 불교 교단과 선, 선산문의 형성과 그 문제, 고려에서의 전통사서의 유통 등 12편

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대를 나눠 매년 한 차례씩 열린다.

△이카키(전자문화지도 추진위원회, ECAI) 회의 = 불교학 관련은 아니지만 5월 22-24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카키 회의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자문화지도는 전자지도라는 가상 공간에 불상, 불탑 등 인문학적 자료를 나타내는 사업으로, 문화자료의 전산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고려대장경연구소에는 이번 회의에 맞춰 전자불전인 고려대장경 2002년판과 '한국불상'과 '불탑' 시험 버전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10여 개 국, 50여 명의 관련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담당 = 권형진 기자 jenny@buddhapa.com

"중국서 끊어진 석옥청공 법맥 고려 태고보우로 이어졌다"

태고학회, 만수사 사적기 '도량사지'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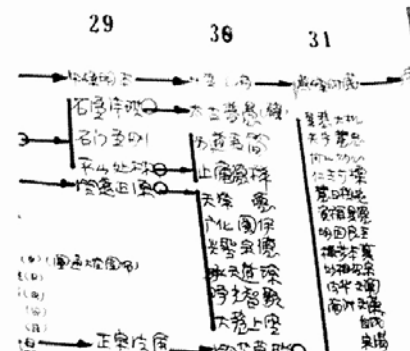
중국 원대 임제종의 고승 석옥청공이 머물렀던 중국 호주시 도량사(道量寺)의 도량사 법맥도 부분적으로 국사가 석옥청공의 법맥을 이어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된다.

한국불교태고학회(회장 무공)는 지난해 12월 중국 호주에서 '제1회 중국 원대 선종과 차문화 국제 학술대회'를 위해 현지를 방문한 결과, 만수사 사적기 편찬을 위해 정리한 기초자료 원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9일 밝혔다.

태고학회에 따르면, 만수사에서 1년여 준비 끝에 펴내게 될 <도량사지>의 도량사 법맥도 부분적으로 국사가 석옥청공의 법맥이 고려 태고보우로 이어졌다고 적고 있다. 이 법맥도에서는 특히 석옥청공의 법맥이 태고보우를 마지막으로 끊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어, 석옥의 법맥이 중국에서는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장 무공 스님은 "석옥청공의 법맥이 고려로 넘어간 사실을 밝히



△<도량사지>편찬을 위해 정리한 기초자료 원고. 석옥청공의 법맥이 태고보우에서 끊어졌다.

고 있는 점에서 그들 스스로가 석옥의 법맥이 고려로 옮겨졌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석옥청공의 법맥이 고려의 태고보우로 넘어간 것은 <석옥청공선사어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무공 스님은 덧붙였다. 즉 석옥청공의 스승 금암종린이 석옥에게 내

린 '금린(金麟)'이라는 계승이 태고보우를 인가할 때 그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태고학회와 중국육우차문화연구원(회장 동숙탁, 불교문화연구원 회장 최석환)은 12월 27일 열린 국제학술회의에는 원대 선종의 사상사, 한·중 선종 교류사, 차문화의 수용과 전개로 주제를 나눠 2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동숙탁 회장은 개회사에서 "원대에 불교는 임제종의 고승 석옥청공 등이 호주에서 불법을 펼친 데, 고려의 태고 보우국사가 석옥청공선사에게 법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활인(活人) 천역(天役)자 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가?

명예와 상심을 걸고 역학사(易學史)에 한 획을 긋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또, 소행을 모르는 분을 위해, 소행을 능통한 분을 위해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다시 썼습니다. - 효사 -

세태(世態)는 구체적이고 즉시적인 영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육임 신단(神斷)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시간만 보아 미리 그 사람의 사정과 특별한 비밀과 일의 결과를 물기전에 내가 먼저 말해 주는 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낯익은 장에 매시만다 적혀 있어 거기에 쓰여진대로 보고 말씀만 하면, 그 사람의 자색과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있는 책입니다. 육임은 신통(神通)한 학문으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은 아니 접근이 어려워 덮여버리기 십상인데, 그것을 쉽고 빠르게 활인천역자용으로 발행해 놓은 것입니다. 이틀테면, 낮사(日事) (9:32-11:32 : 서울지역기준)에 사람이 왔거나 전화했거나 가서 만났을 때, 이사(日事) 칸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씀만하면 다 맞게 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말할 수 있고 또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운세판단 :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 순조로운지 역경스러운지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2. 수법가부 : 천도 시식 국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즉 국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표 또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래방목적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꿈으러 왔는지 적혀 있습니다.
4. 정황판단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 초사(初辭) : 문에 들어서자마자, 전화 오자마자, 가서 만나자마자 때때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귀신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쓰여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6. 모양가부 : 무엇을 묻든, 그 묻는 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즉시 보고 말해줄 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7. 이해특질 :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 즉시 판단 하여 말해 줄 수 있게끔 써 있습니다.
8. 선악구별 :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표시해 줍니다.
9. 아타발동(彼動)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고민사가, 자기 스스로 일으킨 일인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10. 원근사 여부 : 묻는 용건이 오래된 일인지, 근래에 일어난 일인지, 자주 반복되는 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미기사(未起事)여부 :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가 써져 있어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2. 일의 과정 :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일이 시작, 중간, 결과로 나뉘어져 좋고 나쁜 것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대로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 13. 귀신침범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 시간만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침범하여 방동하고 있는지를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칸에 다 써 왔고 그 귀신을 제압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부록에 자세히 밝혀 놨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을 밝히면 반드시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되는데, 이때엔 '전사귀가 방동했네', 라고 들어서는 사람에게 즉시 먼저 말하면 그 집안에 전령제가 나가 운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됩니다. 이것은 육임에서만 말할 수 있는 비법으로 천도나 시식, 또는 국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크게 활용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14. 산소탈 여부 : 지금, 누구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탈 부리고 있는 산소를 써놨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들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 받자마자, 찾아가서 마주치자마자 먼저 내보내실 수 있도록 써 놨습니다. 이 산소탈에 대한 제법도 부록에 밝혀 놨습니다. 이틀테면 조부, 조모 부친, 모친, 형제자매, 숙부, 외조부, 외조모, 강인, 남편, 아내, 낙태아 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15. 사슴여부 : 빙미부정 역시 온 사람이나 전화한 사람의 떠난 알면, 상대가 현재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빙미부정은 떠돌음 모두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단번에 기신을 제압당해 버립니다.
16. 가상길흉(家相吉凶)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흉상인지, 길상인지, 이사를 하면 좋을 것인지, 빨리 그 집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부록 해당 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주치는 그 순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7. 이사길흉 : 이사를 하려할 때, 어디로 이사를, 어느 날에 시키면, 언제 어느 해, 또는 어느 월에 가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아예 써 놨습니다.
18. 소송승패 : 국가와 개인간의 소송, 집안 상속 수하간의 소송, 타인간의 원고, 피고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분명히 표시해 놨습니다.
19. 응기판단 : 묻는 일이 어느 월에 될지, 어느 날에 될지를 정확히 써놨습니다. 또 부록에 그 근거를 밝혀 놓았으므로 이를 보시면 참으로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20. 가해(加害) : 어디 방위에 사는 남, 누가 피해를 가해 온 사람인지를 밝혀 놨습니다.
21. 길흉성부단정형률 : 뒷면에, 묻는 용건을 즉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묻는 내용 2가지면도 그 답을 써놨습니다. 모양, 공명, 구제, 구적, 시형, 혼사,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매매, 출생, 도난, 심인, 대인, 상인, 재용, 부자, 승부, 가격, 경작, 묘지, 기후
22. 연명상신법 : 뒷면에, 그 사람 떠난 알면 그 사람의 운세를 말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귀인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빈한자사인지, 병들 사람인지, 관재가 있을 사람인지, 동등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한국 육임학의 각지회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책을 보실 수 있고 활인기법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육임강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016-227-7074 (토요일) 전남·광주 017-614-1130 (화요일) 경기·인천 032-549-6633 (월요일)
경남·부산 011-558-5496 (일요일) 충남·대전 016-445-4580 (화요일) 경기·수원 016-745-4703 (목요일)
경북·대구 011-530-6652 (월요일) 충북·청주 221-2557 (수요일) 경기·북부 011-9022-4452 (금요일)
전북·전주 011-650-8835 (수요일) 강원·원주 017-377-7005 (금요일) 제주 064-723-2435 (토요일)

이 모든 것들이 그 낯익은 한 장 칸마다에 시간별로 다 쓰여져 있으므로, 바인더로 된 본 책에서 그 낯익은 정만 해서 책상위에 놓고 하루 동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몇 명이 오든, 전화가 오든, 가서 만나든 몇 시로 보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봐도 모두 다르게 구별 할 수 있도록 다 적혀 있습니다.
● 전 13권 · 바인더금박 · 크기 : 540 × 380 × 30 · 지질 : 스노우무량 ● 주문전화 : (02) 993-8680
● 입금처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도서출판 북문 ● 각종 카드도 잘기 분할 구입도 가능합니다.
매월별 12권 분권 부록 · 비디오테이프 포함 W 1,300,000원 (일괄상십만원)
육임 1년 신수버판 출시 주문받습니다.
값 250,000원(1,450페이지, 8월 1일(목요일)이요, 보는 날짜와 시간만 찾아 그것을 보고 말씀만 하십시오.
적중률입니다. 11월 11일 김홍이 신통이 적혀 있어 평생동안 매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